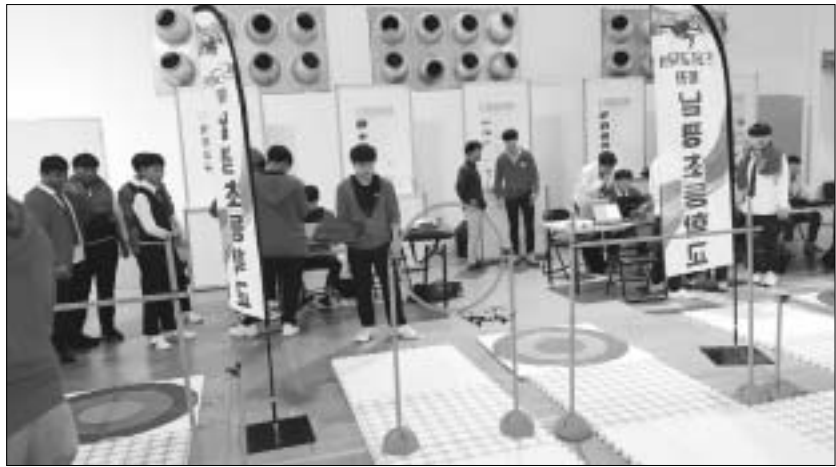


전남교육청, SW창의융합 동아리 드론 경연대회 성료

창의·코딩 등 2개 분야 나눠 열린 경연



전남도교육청이 11일 여수엑스포박람회장에서 '2019. SW창의융합 동아리 드론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회에는 문태중, 여수양지초, 여수석유화학고, 순천팔마중, 남평초, 광양마동초, 장흥초, 강진중앙초, 염산초, 진도고, 고흥산업고 등 12개 학교에서 학생 53여 명이 참여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또, 남평초 김도형, 정찬휘, 박치원 교사의 강의와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경연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드론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라는 주제 아래 일상생활의 문제를 드론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창

의 드론' 과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코딩해보는 '코딩 드론'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해결했던 과정을 포스터와 모형으로 제작해 발표해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도교육청은 단순히 조종을 통해 장애물을 통과하는 타입이택 방식의 드론 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년 간 두 차례 열린 멘토링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중간

캠프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가다듬어 이번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했다. 오전 '창의 드론 경연' 시간에는 드론을 활용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 것을 모형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노력했던 지난 1년여 간의 과정들을 포스터로 제작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드론에 명령을 내리는 코딩 드론 경연대회를 가졌다. 이 시간에는 드론을 단순히 조종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드론에 명령을 주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5분 안에 프로그래밍하게 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고흥산업과학고 '드론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5G 스마트팜 지기', 여수양지초 '해상 부표 드론으로 생명 구하기', 강진중앙초 '드론을 활용한 이등식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의 주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 중 고흥산업과학고 김도환, 박재영, 이주한, 정수열 학생이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오후에 열린 코딩 드론 경연 초·중학교 부문에서는 마동초 이호준, 남평초 전세민, 남평초 박성현 학생이, 고등학교 부문에서는 여수공업고 김중하, 고흥산업과학고 양동준, 고흥산업과학고 김동현 학생이 각각 교육감상을 받았다.

함평나뎠 연합학생회 리더십캠프 운영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관내 초·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함평나뎠 연합학생회 리더십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 생활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해 보는 교육정책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학생대상 교육은 8개조로 나누

어 소집단 토의활동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회 활동을 통한 리더의 소통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과 친교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생각한 학교교육과 함평교육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 스스로 수립해봄으로써 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였다.

함평교육지원청 박영숙 교육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배우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19일에 '연합학생회 주관 학교별 함평교육정책제안 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표회의 준비에서부터 실행 및 환류까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함평=김광춘 기자

여수부영초, 인성교육실천주간 운영



여수부영초등학교에서는 14일~18일까지 2학기 인성교육실천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인성교육실천주간에 6학년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포켓과 아예끼를 착용하여 교문 말 쓰기

캠페인을 하였다.

김 모학생은 "요즘 줄임말과 욕설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캠페인으로 내가 쓰는 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교실에서는 학급별 재량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4학년 2반에서는 '1분이면'이라는 동화와 '누대기 뭐래?'라는 책을 함께 읽고 1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최 모학생은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였다.

여수부영초등학교에서는 매월 학급규칙에 의해 인성우수학생을 시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친교활동 및 행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실천주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여수부영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 업무협의회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교육행정의 새 지평을 연 전남도지역교육참여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장흥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지역교육참여위원회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22개 시군교육지원청 별로 지역교육참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담당팀장, 업무담당자 등 50여 명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별 참여위원회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참여위원회가 왕성한 주민 참여를 통해 민관학 협치의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역교육참여위원회의 하반기 운영방향과 역할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운영 안내서 해설과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됐고, 마지막 3부는 지역참여위원회 현황과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김영중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 전남교육의 실현은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그 모두를 이루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담당자는 "교육참여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없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 낯설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길이 된다는 자부심도 생겼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컨설팅과 업무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교육참여위원회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협치 교육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용 교권보호 동영상 연수자료 배포

초·중·고 전체학교 배포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 교육용 교권보호 동영상' 연수자료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해 광주 초·중·고 전체학교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중·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대상 교권보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경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오는 17

일 시행 예정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용 동영상 3종을 개발했다.

동영상은 학교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극적 요소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상황극으로 제작되었다.

초등 저학년용은 모션 그래픽을 활용했고, 초등 고학년용과 중·고등학생용 동영상은 각각 광주산수초 6학년 학생과 광주효

광중 연극반 학생들이 직접 출연했다.

동영상에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 교권침해 발생 시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주요 조치내용 등이 포함되어 학생 대상 교권보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자료는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지원센터 누리집 교권 관련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